

# 제주 말[馬] 문화 관련 어휘 연구 1\*

-제주도 방언의 말 이름을 대상으로-

김순자

| 제주대학교 |

## 국문초록

이 글은 제주도 방언의 말[馬] 문화 가운데 말 이름 관련 어휘 100개를 품종, 암수, 나이, 색깔, 모양, 주법, 용도, 서식 환경, 기타 등 9개 범주로 나누어 체계 화하고, 이를 어휘 의미론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동안 제주도 방언의 말 이름에 대한 고찰이 주로 몽골어 차용어의 규명과 모색에 따른 말 이름 명명 등에 초점을 맞춰졌다면 이 글은 말 이름을 9개 범주로 나눠 어휘장을 확대하여 고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논의는 목축이 발달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성읍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제주시 도란동, 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 등 5개 마을 9명의 제보자에게 민족지학적 방법으로 조사한 말 이름 관련 어휘 100개를 문헌 자료와 선행 연구 자료에 나타난 말 이름 등과 대비하며 이루어졌다. 논의 결과, 기존의 논의 자료와 국어사전에 올림말로 등재된 제주도 방언의 말 이름의 주석을 보완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어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 이름 가운데는 사전의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은 어휘도 있어 향후 사전을 보완할 때 이 자료가 참고가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2703). 2015년 6월 26일 '제12회 한국방언학회 전국학술대회' 때 발표했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핵심어: 제주의 말[馬], 제주도 방언, 민족지학, 가시리, 말 이름, 말 문화, 몽골어

## 1. 서론

이 글은 제주도의 말[馬] 문화 관련 어휘 가운데 사라져가는 제주도 방언의 말 이름을 현지 조사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이를 어휘 의미론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등 방언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등의 국어사전, 그리고 선행 연구의 말 이름 가운데는 뜻풀이가 잘못되었거나 의미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말 이름 관련 어휘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다.

제주 지역 언중들은 대체로 ‘암말’은 ‘즈매’, ‘수말’은 ‘웅매’라고 한다. 그러나 방언형 ‘즈매’에 대응하는 표준어형 ‘자마(雌馬)’가 일부 국어사전에 올라 있기는 하지만 ‘웅매’는 방언형으로는 소개하면서도 대응하는 ‘웅마(雄馬)’는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전 기술의 한계는 앞으로 사전을 편찬할 때 말 이름과 그 주석을 온전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편찬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한다.

그동안 제주의 말 문화와 관련한 어휘 조사와 연구는 이기만(1971)과 이기문(1964, 1985, 1991)<sup>1)</sup>, 강영봉(1990), 남도영(2001/2003), 고광민(2004) 등이 있다. 또 관련 학술 서적과 논문, 마을지, 국어사전과 방언사전 등에서 제주도 방언의 말 이름과 그 의미를 기술해 놓고 있다.

이기만(1971)은 모색에 따른 종류별 명칭과 특징, 모색별로 말의 등급을 나누

1) 이 논문은 《국어어휘사연구》(1991, 동아출판사)에 재수록되어 있다. <몽골어 차용어에 대한 연구>는 1964년 영문으로 발표한 논문을 국문으로 옮겨 《국어어휘사연구》에 발표한 것이다.

는 한편 모색의 종류별 출현 빈도, 모색에 따른 말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을 위하여 이기만은 1960년 1월, 1968년 12월, 1969년 7월 3차에 걸쳐 ‘제주도의 말’을 조사하여 전체 2980 마리의 말 가운데 ‘유마’(43.26%)>‘적다’(30.46%)>‘총마’(13.4%) 순의 빈도를 보여주었다.<sup>2)</sup>

이기문(1985, 1991)은 ‘가라말, 간자말, 고라말, 구렁말, 아질개말, 절다말’ 등 말 이름과 ‘고들개’와 ‘오랑’ 등 마구의 중세국어가 몽골어 차용어임을 밝힌 바 있다.

강영봉(1990)은 이기만의 논문과 현평효의 자료<sup>3)</sup> 등을 활용하여 제주도 방언의 말 이름과 몽골어와의 개연성을 살피는 한편 말 이름이 용도와 형태, 털의 빛깔에 따라 명명되고 있음을 밝혔다. 고광민(2004)은 민속학적으로 말 문화와 관련해 기술하면서 34개의 말 이름<sup>4)</sup> 관련 어휘를 소개하였다.

제주도 방언의 말 관련 어휘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석주명(1947)<sup>5)</sup>이 있다. 이어 박용후(1961/1988)와 현평효(1962)에서도 말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의 자료들은 석주명(1947), 이기만(1971), 현평효(1962) 자료를

- 
- 2) 이기만의 이 논문은 1970년에 한국축산학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기만은 가라 유마 적다 고라 총마 부루 자홀 거홀 율라 등 9개의 말로 분류한 후 관련 어휘를 소개하고 있다. 또 공골말, 백마, 밤마도 소개하고 있다. 연구자가 조사한 말 이름 가운데는 부루와 자홀류의 말 이름은 조사되지 않았다.
  - 3) 현평효의 자료에 소개된 말 이름은 가래말, 고라말, 먹가래말, 추가래말, 조류매, 유매말, 검은유매말, 부흰유매말, 적대말, 초적다, 고치적대말, 구렁적대말, 청총매, 월레말, 검은월라말, 노린월라말, 백매, 구렁말, 거울마, 살쥬백이, 연사라말, 쪽백이말, 코간전이, 함부리 등 24개 어휘다(강영봉 2004:46).
  - 4) 가래말, 먹가래말, 추가래말, 월레말, 검은월라말, 노린월라말, 검은유매말, 부흰유매말, 고라말, 조류매, 청총매, 적대말, 고치적대말, 부루말, 연사라말, 간전이, 코간전이, 쪽백이말, 쌀죽백이, 함부리, 태성백이, 왕골허, 거울마, 쪽발이, 제매, 곱소리, 귀옥쟁이, 활둥이, 삼둥이, 사둥이, 조랑말, 꽃말, 번말, 야마(野馬).
  - 5) 말(馬)의 종류 1. 가라 말(眞黑) 먹가라(眞黑) 추가라(茶褐色) 2. 청초 마(黑白 混色에 靑靑 있는 말) 3. 적다 말(赤) 고치적다(眞赤) 구렁적다(고치적다와 초적다의 中間) 초적다(淡赤, 모시갈기와 모시총이 生함) 4. 울아 말(靑) 줄유마(赤褐. 갈기 총 黑色) 유마 검은유마(黑褐) 부인유마(黃褐) 6. 백마(白) 7. 고라말(灰), 거울 말(各足上部가 白色). 머쉬의 나이 금승마 이수매 삼수매 사수매 오수매 육수매 칠수매 팔수매 구수매 십수매 병신말 하동이 고부랭이 삼둥이 죽발이 갈뛰다리 접진저 복시다리, 濟馬와 才馬(석주명 1947:152, 157, 160, 178)

상당히 참고하여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 2. 조사와 연구 방법

이 논의를 위해서 먼저 예로부터 목축산업이 성행하였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를 1차 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여 직접 면대면으로 조사를 하였다.<sup>6)</sup>

조사는 가시리에서 2014년 10월, 2015년 3~4월 각각 두 차례씩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는 약식질문지를 가지고 민족지학적 방법으로 제보자들에게 면대면 구술 채록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제주도 방언의 말 이름 관련 어휘를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모든 질문은 방언으로 진행하였다. 방언으로 질문하면 제보자와의 거리를 좁혀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평소에 쓰지 않던 방언형을 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가시리 조사 자료는 한글 전사를 하여 말 이름 관련 어휘와 특징을 뽑아낸 후에 9개 범주로 나누어 어휘를 분류하고 목록을 만들었다. 가시리에서 말을 키워봤거나 지금도 말 관련 일을 하는 ‘말테우리(목자)’ 2명의 제보자에게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어휘 체계를 세운 후에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제주시 도련동, 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에서 조사한 자료를 추가하여 제주도 말 이름 관련 어휘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은 제보자 정보다.

---

6) 가시리는 본동(중동·동상동·동하동), 안좌동, 역지동, 두리동, 생기동, 폭남동 등 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중산간마을로 조선시대 갑마장(甲馬場)이 설치되었던 전통적인 목축 산지다. 지금도 주민 20명 정도가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라져가는 말 문화 관련 어휘를 조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표 1> 제보자 정보

제보자	나이 <sup>7)</sup>	조사연월	거주지
오국현	82	2014년 10월, 2015년 3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고창호	79	2015년 3월, 2015년 4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송순원	78	2015년 9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김병현	81	2015년 9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홍태휴	80	2015년 10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이영숙	90	2015년 3월	제주시 도련동
양상수	80	2015년 3월	제주시 도련동
김성욱	80	2005년	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

말 이름에 대한 주석은 제보자들의 인상적인 설명과 사전류 등을 참고하여 기술하였고, 《표준》의 주석과 대비하여 온전한 주석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 지역에서 조사한 말 이름은 강영봉(2007)을 참고하였다.<sup>8)</sup> 박용후(1961/1988)<sup>9)</sup>, 현평효(1962), 송상조(2007), 현평효 외(2009) 등에 표제어로 올라 있는 말 이름 관련 어휘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남광우(1997/2009)의 《고어사전》 등 문헌자료와 자연과학 논문이지만 제주의 말 이름을 다룬 이기만(1971)과 남도영(2001/2003)의 자료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

7) 제보자 나이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8) 이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2005년 지역어 조사 자료 가운데 구술 발화 자료 일부를 주석을 달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필자는 이 조사에 동행하여 방언 조사를 함께하였다.

9) 박용후(1988)의 자료에는 가라말, 먹가라, 추가라, 가래말, 간자말, 간전이, 갈뚝다리, 거을말, 검은율라/검은율래, 고라말/고래말, 고부랭이, 고치적다, 구렁말, 구렁적다, 금승마, 금승땡생이, 이수매, 삼수매, 스수매, 노린율라, 눈굴이말, 멘백이, 멩생이, 멩아지, 백마, 백말, 뺑신말, 고부랭이, 복시다리, 삼등이, 접진거, 족발이, 하등이, 부루말, 부인유마, 산매, 새말, 새땡생이, 생말, 썰간저니, 스수매, 우매, 응매, 율라말, 검은율라, 노린율라, 율래말, 유마, 검은유마, 보은유마, 줄유마, 이수매, 올라말, 적다말, 고치적다, 구렁적다, 초적다, 적대말, 제마(才馬), 족발이, 자류마, 청가래말, 청조마, 청총말, 초적다, 추마, 코간저니말, 하등이, 호달매, 호매 등 말 이름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자료는 석주명(1947)의 자료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였다.

### 3. 제주도 방언의 말 이름과 그 어휘 체계

‘말馬’의 방언형 ‘말’은 중세어 ‘말’형이 현재까지 쓰이고 있다. 새끼는 ‘몽생이’ 또는 ‘몽아지’로 실현되는데, ‘몽아지’는 《시경언해》 등 문헌어에 올라 있는 어휘다.<sup>10)</sup> 제주의 말은 보통 ‘조랑말’로 불린다. 체보자에 따라 ‘토종말’이라고도 한다. ‘말’은 “만주어 morin과 몽골어 morin과 대응됨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강영봉, 1990:49). 말 관련 어휘 가운데 몽골어 차용어가 많은 것은 고려시대에 100년 가까이 원의 목장이 제주에 설치되었던 역사적인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자어가 많은 것 역시 말 이용이 많았던 시대가 한자 사용이 보편화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언형 가운데는 ‘곶말’, ‘텃말’처럼 제주도 방언의 특징을 지닌 어휘도 조사되어 말 어휘를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이 논의를 위하여 조사된 말 이름 관련 어휘는 100개다. 이들 말 이름을 품종, 암수, 나이, 색깔, 모양, 주법, 용도, 서식 환경, 기타 등 9개의 범주로 나눠 체계화하면 <표 2>와 같다. 말 이름의 범주화는 품종 관련 명칭 ‘호달매’를 제외하고 언중들이 인식하는 토종말인 ‘조랑말’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2> 제주도 방언 말 이름<sup>11)</sup>의 어휘 체계

구분	명 칭	
	동일 범주	하위 범주
품종	조랑말, 토종말	
	호달매	
암수	즈매, 즈마, 암말, 암놈	
	웅매, 수말, 수마, 숫놈	

10) 망아지에 대한 문헌어로는 ‘몽아지’ 외에 ‘망야지’(《두시언해》(초간본)), ‘믹야지’(《두시언해》(중간본)), ‘믹야지’(《두시언해》(중간본))도 나타난다.

11) <표 2>에 기술된 말 이름은 필자가 직접 조사한 말 이름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자와 조사자에 따라 말 이름의 주석이 다른 경우도 있고, 자료에는 있으나 5개 마을의 현지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말 이름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 자료에 따라 표기와 형태가 다른 경우도 있어 어휘 체계를 세우거나 주석을 할 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어휘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문헌 등의 자료에 나타난 말 이름은 주석 4)~6), 9)에 달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이		금승매, 금승똥생이	
		이수, 이수매, 이수똥생이	
		삼수, 삼수매, 삼수똥생이	
		스수, 스수매~십수매	
		장팔수	
색깔		가라, 가라물, 가레물, 검은물	추가라, 추가라물, 추가래, 추가래물
		적다, 적다물, 붉은물	초적다 고치적다
		월라, 월라물, 월레물	
		총이, 총마, 총매	백총이, 흰청총이 청총, 청총이(청총이) 누룩총이 먹청총이
		백매, 백물, 흰물	
		유마, 유마물	감은유마, 보힌유마, 즈류마
		구렁물	구렁적다
		거울, 거울물, 거홀물	
		고라, 고라물	
모양	문양	태성, 태성백이, 태성물	왕태성, 큰태성, 보석태성 소태성
		멘백이	코멘백이
		간전이, 간전매, 간전물	썰간전이 코피말이 코간전이
		족백이	앞족백, 앞족백이, 앞백이 뒷족백, 뒷족백이, 뒷백이 스족백, 스족백이
	형태	화등매, 화등이, 활등이	
		자부레기	
		접수기	
		구부렁물, 꼬부랑물	
		족발이	
		미홍이	
주법		제마	
용도		경마, 둔는물	
		타는물	

	다울리는물, 밧블리는물	
	중마, 종장	
서식 환경	꽃물, 산물	
기타	텃물	
	지지랭이, 지지랭이물	

제주도 방언의 말 이름 관련 어휘는 계통과 조어법 측면에서도 살필 수 있다. 계통에 따라서는 고유어, 한자어, 차용어, 혼종어로 나뉜다. 고유어는 암수, 형태, 용도 등과 관련한 말 이름에 나타나고, 한자어는 나이와 색깔, 모양 등의 이름에서 보인다. 차용어는 말의 털 색깔과 관련한 어휘 대부분에서 나타나는데, 몽골어 차용어<sup>12)</sup>가 주를 이룬다. 혼종어는 말 이름 어휘 9개 범주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 혼종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계통에 따른 말 이름 어휘

계통		관련 어휘
고유어		암물, 암놉, 수물, 숫놉, 붉은물, 검은물, 흰물, 코피말이, 화등이, 활등이, 자부레기, 접수기, 구부렁물, 꼬부랑말, 둔논물, 타논물, 꽃물, 텃물, 지지랭이, 지지랭이물(20개)
한자어		즈매, 즈마, 웅매, 수마, 금승매, 이수, 삼수, 삼수매, 스수, 스수매, 십수매, 장팔수, 청총, 백매, 유마, 자류마, 거을, 태성, 왕태성, 보석태성, 소태성, 스죽백, 제마, 경마, 중마, 종장(24개)
차용어		가라, 적다, 월라, 고라(4개)
혼종어	차용어+방언형	조랑물, 적다물, 월라물, 월레물, 가라물, 가레물, 구렁물, 고라물, 간전이, 간전물(10개)
	한자어+방언형	토총물, 호달매, 금승몽생이, 삼수몽생이, 백총이, 흰청총이, 청총이, 누룩총이, 멧청총이, 백물, 유마물, 거을물, 거흘물, 태성백이, 태성물, 멘백이, 코멘백이,

12) 제주도 방언의 말 이름이 몽골어와 연관되었다는 개연성을 밝힌 논문은 강영봉(1990), 이기문(1991) 등이 있다.



		족백이, 족발이, 미홍이, 산뿔(21개)
	한자어+차용어	추가라, 추가레, 초적다(4개)
	차용어+한자어	간전매(1개)
	한자어+차용어+방언형	추가라물, 추가레물(2개)
	방언형+차용어	고치적다, 썰간전이, 코간전이(3개)
	방언형+한자어	감은유마, 보흰유마, 큰태성, 앞족백, 앞족백이, 앞백이, 뒷족백, 뒤족백이, 뒷백이, 스족백이, 화등매(11개)

조어법 측면에서 보면, 단일어보다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이루어진 어휘가 많다. 단일어는 몽골어 차용어 가운데 색깔을 나타내는 어휘에 ‘+뿔’이 결합되지 않은 ‘가라, 고라, 율라, 거을’ 등에서 보인다.

<표 4> 조어법 측면에서 본 말 이름 어휘

조어법	관련 어휘
단일어	가라, 적다, 율라, 고라, 유마, 거을(6개)
합성어	조랑뿔, 토종뿔, 호달매, 금승뿔생이, 삼수뿔생이, 백총이, 흰청총이, 청총이, 누룩총이, 먹청총이, 백뿔, 유마뿔, 거을뿔, 거흠뿔, 태성백이, 태성뿔, 암뿔, 암늬, 수뿔, 솟늬, 즈매, 즈마, 웅매, 수마, 금승매, 삼수, 삼수매, 스수매, 십수매, 장팔수, 청총, 백매, 자류마, 태성, 왕태성, 보석태성, 소태성, 스족백, 제마, 경마, 종마, 종장, , 적다뿔, 율라뿔, 율레뿔, 가라뿔, 가레뿔, 구렁뿔, 고라뿔, 간전이, 간전뿔, 붉은뿔, 검은뿔, 흰뿔, 코피말이, 구부렁뿔, 꼬부랑말, 둔는뿔, 타는뿔, 꽃뿔, 산뿔, 텃뿔, 지지랭이뿔, 구렁적다, 초적다, 추가라, 추가레, 추가라물, 추가레물, 고치적다, 간전매, 썰간전이, 코간전이, 감은유마, 보흰유마, 큰태성, 앞족백, 앞족백이, 앞백이, 뒷족백, 뒤족백이, 뒷백이, 스족백이, 화등매(84개)
파생어	덴백이, 코덴백이, 족백이, 족발이, 미홍이, 화등이, 활등이, 자부레기, 접수기, 지지랭이, (10개)

#### 4. 말 이름의 어휘 의미론적 고찰

##### 4.1. 품종 관련 말 이름

## 4.1.1. 조랑말, 토종말

‘조랑말’은 ‘조랑말’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 (1) 가. 조랑말 옛날 토종말 질좌근에 멩아지 뽑는다, 지금 개랑허는 그 큰말에 수 교배를 부져.(조랑말 옛날 토종말 키워서 멩아지 뽑는데 지금 개랑허는 그 큰말에 수 교배를 붙여.)<가시, 고창호>
- 나. 조랑말은 여기 제주산 보고 조랑말은 옛날 식으로 불러신디 스타 후젠 보니까 웨국산도 들어오고, 그 죽은 건 무조건 조랑말엔 불러난 원.(조랑말은 여기 제주산 보고 조랑말은 옛날 식으로 불렀는데 사태 후에는 보니까 외국산도 들어오고, 그 작은 것은 무조건 조랑말이라고 부르니까. 원.)<가시, 오국현>
- 다. 우리 토종말을 조랑말엔 허주게.(우리 토종말은 조랑말이라고 하지.)<도련, 이영숙>

예문 (1 가-다)에서 보듯이, 제주사람들에게 ‘조랑말은 토종말로 인식되고 있다. ‘제주마’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표준》에는 ‘조랑말’을 ‘몸집이 작은 종자의 말’이라고 하고, ‘제주마’는 ‘제주에서 나는 조랑말’로 풀이해 놓고 있다. 한 자어는 ‘왜마(矮馬)’가 쓰이고 있다. ‘조랑말’은 일반적으로 몽골말 ‘조로모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몸집이 자그마해서 제주도 방언 ‘족다’에서 유래한 말 이름이라는 해석(고광민, 2004:292)도 있으나 이는 아닌 것 같다. “한국마사회(현재 렛츠런)에서도 조랑말은 ‘조로모르’의 명칭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공식 표명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제주 조랑말 가운데 달릴 때 조로모리를 구사하는 말들이 몇 마리가 있다. 제주에서는 이러한 주법을 구사하는 말들을 제마(齊馬)라고 부르는데 안장에 달갈을 엮어놓아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진동 없이 달린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박원길, 2005:228)<sup>13)</sup>. 따라서 ‘조로모리’는 ‘달릴 때 상하의 진동이 없이 아주 매끄럽게 달리는 주법을 구사하는 말’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13) 박원길(2005)의 주 18)에서 부분 인용하였다.

‘토종말’은 그 지방에서 예전부터 길러 오던 고유한 품종의 말을 가리킨다. 예문 (1 ㄱ, ㄴ)을 보면, 언중들은 ‘토종말’을 ‘조랑말’로 인식하고 있다. 언저부터인가 ‘토종말’ 대신에 ‘제주마’가 쓰이고 있다.

#### 4.1.2. 호달매, 호마

‘호달매’는 표준어 ‘호마(胡馬)’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제보자들은 ‘호달매’와 표준어형 ‘호마’를 함께 쓰고 있다. ‘호마’는 ‘예전에, 중국 북방이나 동북방 등지에서 나던 말’을 말한다.

(2) ㄱ. 호달매는 옛날 그 제국시대 일본 사름덜 타난 말.(호마는 옛날 그 제국시대 일본 사람들 타던 말.)<가시, 고창호>

ㄴ. 호달매엔 헛 거 막 큰 거. 요즘 경마용 그런 종이란게. 반종덜.(호마라고 한 거 매우 큰 거. 요즘 경마용 그런 종이던데. 반종들.)<가시, 오국현>

(2 ㄱ)에서 알 수 있듯이, 제보자들은 ‘호달매’를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타고 다니던 말로서 ‘조랑말’보다 덩치가 큰 말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호달매’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붙은 인상적인 주석이다.

## 4.2. 암수 관련 말 이름

### 4.2.1. 암말, 암놈, 즈매, 즈마

‘암말’, ‘암놈’, ‘즈매’, ‘즈마’는 ‘말의 암컷’을 이르는 말이다. ‘암말’은 ‘암+말’ 구성으로, 《노걸대언해 하:8》와 《역어유해 하:8》의 ‘암말: 과마(騾馬)’가 방언형에 그래도 남아 있는 경우다. 《번역노걸대 하:9》와 《훈몽자회 하:7》에는 ‘아말’ 형이 보인다.

‘즈매/즈마’는 한자어 ‘즈(雌)+매(馬)’ 구성으로, ‘암말’의 한자어 이름이다. 방언형 ‘즈매/즈마’에 대응하는 ‘자마’는 《표준》에만 표제어로 올라 있을 뿐

대부분의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은 어휘다. ‘암말’을 뜻하는 한자어로는 ‘빈마(牝馬)’가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올라 있다.

#### 4.2.2. 수말, 숫놈, 수마, 웅매

‘수말, 숫놈, 숫마, 웅매’는 현대어 ‘수말’<sup>14)</sup>과 ‘웅마’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말의 수컷’을 가리킨다. ‘수말’을 뜻하는 방언형 ‘웅매’는 《표준》과 《우리말 큰사전》(이하 《우리》)에 ‘수말의 제주방언’으로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웅마’를 표제어로 올린 국어사전은 찾아볼 수 없다. ‘자웅(雌雄)’이 암수를 가리키는 한자어라면 ‘자마’에 대응하는 한자어 ‘웅마(雄馬)’도 표제어로 올라야 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국어사전에는 ‘웅매’를 제주도 방언으로 소개하면서도 표준어형 ‘웅마’는 표제어로 올리지 않고 있다. ‘수말’에 대응하는 한자어로는 ‘모마(牡馬)’<sup>15)</sup>가 표제어로 올라 있다.

- (3) ㄱ. 사삼사건 후에 소 엇엇는디 웅매로 마차를 막 해.(사삼사건 후에 소 없엇는데 웅마로 마차를 마구 해.)<가시, 고창호>  
 ㄴ. 암말은 즈매 수말은 웅매.(암말은 자마 수말은 웅마.)<가시, 오국현>  
 ㄷ. 암놈 즈마, 숫놈 숫마.(암놈 자마, 수놈 수마)<송당, 김병현>

(3 ㄱ-ㄷ)의 예문에서 보듯이, 제보자들은 말의 암수를 구분해 부를 때 고유어 ‘암말’과 ‘수말’보다는 한자어 ‘즈매’와 ‘웅매’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수말: 兒馬’(동문유해 하:36, 한청문감 14:19). 《표준》에는 한자어 ‘아마(兒馬)’를 ‘길들지 않은 작은 말’로 뜻풀이 하고 있다.

15) 《표준》에 보면, ‘암말’의 뜻풀이는 ‘말의 암컷’이라고 되어 있지만 ‘빈마’는 ‘피마’와 같은 말로, ‘다 자란 암말’로 풀이해 놓고 있다. 반면 ‘모마’는 ‘수말’과 같은 말로, ‘말의 수컷’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훈몽자회》 등에 소개된 ‘과마(驃馬)’는 울림말로 올라 있지 않다.

### 4.3. 나이 관련 말 이름

예문 (4 ㄱ-ㄴ)을 보면, 나이와 관련한 말 이름은 ‘금승, 이수, 삼수’ 등에 ‘고유어’ ‘-말’보다 한자어 ‘-매[馬]’를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금승매’는 표준어 ‘금승말’에 대응하는 나이 관련 말 이름이다. ‘금승말’의 방언형으로는 ‘금승말’ 또는 ‘금승몽생이’가 쓰인다. 두 살부터 열 살까지는 ‘이수매~십수매’처럼 나이에 한자어 ‘+매’를 결합하여 쓰고 있다. ‘금승매’부터 ‘삼수매’까지는 ‘금승몽생이, 이수몽생이, 삼수몽생이’처럼 부르기도 한다. 제주 지역에서는 소와 말의 ‘한 살’은 ‘금승’으로 같지만 두 살부터는 차이가 난다.<sup>16)</sup> 《우리》에는 ‘금승마’와 함께 ‘이수매~십수매’까지의 방언형이 등재되어 있지만 《표준》에 ‘금승마/금승말’과 방언형 ‘칠수매’와 ‘팔수매’가 표제어로 올라 있을 뿐이다.

- (4) ㄱ. 금승매 이수매 삼수매가 있주.(금승마 이수마 삼수마가 있지.)<가시, 고창호>
- ㄴ. 금승몽생이, 이수몽생이, 삼수몽생이 해영 오수<sup>7</sup>까지는 다 연수로 올라가당 오수가 넘어온에게 칠수나 팔수 뉘면은 다시는 모르니까 무조건 저 장팔수엔 허주. 건 늑안티 곶은 거. 늑은 물엔 아녕 장팔수 팔수엔만 허여.(금승망아지, 이수망아지, 삼수망아지 해서 오수까지는 다 연수로 올라가다가 오수가 넘어서 칠수나 팔수 되면 다시는 모르니까 무조건 장팔수라고 하지. 그것은 남한테 말한 거.)<가시, 오국현>

#### 4.3.1. 금승, 금승매, 금승몽생이, 금승말

‘금승, 금승매, 금승몽생이, 금승말’은 한 살짜리 말을 일컫는 이름이다. ‘금승’은 한자어 ‘今生’에서 온 말로, 여기에 ‘매, 몽생이, 말’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말이다.

16) 제주에서 소의 나이를 셀 때는 ‘금승, 다간(다간송애기), 사릅, 나릅, 다습’처럼 센다. 표준어로 말의 나이를 셀 때는 ‘하릅(한습), 두습(이습), 사릅, 나릅, 다습’처럼 세는데, 이런 셈법은 ‘소, 말, 개 따위의 나이를 셀 때’도 공히 쓰인다.

#### 4.3.2. 이수, 이수매, 이수몽생이

‘이수, 이수매, 이수몽생이’는 두 살짜리의 말을 부르는 명칭이다. 한자어 이수(二數)에 ‘매, 몽생이’가 결합한 형태인데, ‘+몰’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 4.3.3. 삼수, 삼수매, 삼수몽생이

‘삼수, 삼수매, 삼수몽생이’는 세 살짜리 말을 부르는 명칭이다.

#### 4.3.4. 스수~십수

‘스수...십수’는 말의 나이 네 살부터 열 살까지의 말을 부르는 명칭이다. 여기에 ‘매[馬]’가 결합되어 ‘이수매’, ‘삼수매’처럼 부르기도 한다. 석주명(1947)은 ‘십수매’까지, 박용후(1988)는 ‘삼십세’까지의 말 나이를 제시하였다.

#### 4.3.5. 장팔수

‘장팔수’는 말의 나이가 많은 것을 빗대서 하는 말이다. 앞의 예문(4ㄴ)처럼 제보자에 따라서는 팔수가 넘으면 ‘장팔수’라고만 부르기도 한다.

### 4.4. 색깔 관련 말 이름

말 이름은 털 색깔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분화되어 나타난다.<sup>17)</sup> 색깔 관련 말 이름은 ‘검은물(검정말)’, ‘흰물(흰말)’처럼 고유어 이름도 있고, ‘백

17) 말의 모색(毛色)에 대한 분류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세분화되었으며 근간에 이르러서는 개량마의 분류방식에 따라 단순한 모색의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은 다른 동물에 비해 모색의 유전이 복잡하고 모색도 아주 다양하다. 같은 말에서도 피모(被毛)의 색이 다를 경우, 또 피모의 색에 있어서도 길고 열음에 따라 모색에 이름이 달라진다. 또한 한 가지 모색이 아니라, 그에 따른 모색명이 달라지고 어떤 색의 털이 원색의 피모와 혼합될 때에도 역시 모색의 이름은 달라져 모색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또한 모색이 다양한 이유는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계절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애매할 경우가 많다(남도영(2001/2003:91, 94-95).

매'처럼 한자어 명칭도 있다. '가라말'처럼 몽골어에서 차용한 말 이름도 많다.<sup>18)</sup> 이들 말은 “일 가라, 이 청충, 삼 적다, 스 율라, 오 유마, 육 거을.”(도련, 이영숙)처럼 털 색깔에 따라 등급을 나누기도 한다.

#### 4.4.1. 검은말[검-], 가라, 가라말, 가래말, 추가래(말)

‘검은말’은 색깔이 검어서 붙은 명칭으로 어휘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5) ㄱ. 검은말은 가래말 붉은말은 적대말 얼룩얼룩행은에 흰 털하고 검은 털 백인 건 청충이, 노란 털하고 흰 털 박은 건 율레말, 갈기 노란 건 추가래.(검은말은 가라말 붉은말은 질따말 얼룩얼룩해서 흰 털하고 검은 털 박힌 것은 청충. 노란 털하고 흰 털 박힌 것은 율라말, 갈기 노란 것은 추가라.)<조수, 김성욱>

- 나. 가라말은 완전히 검은 거.(가라말은 완전히 검은 거.)<가시, 오국현>
- ㄷ. 일 가라 가마귀빛 나가지고 반짝반짝허주게. 그걸 제일 일등으로 색깔을 보는 거라.(일 가라 까마귀빛 나가지고 반짝반짝하지. 그것을 제일 일등으로 색깔을 보는 거야.)<도련, 이영숙>
- ㄹ. 일 가라 까망허고 총갈기가 꼭ㄴ든 색깔.(일 가라 까망고 총 갈기가 똑 같은 색깔.)<가시, 오국현>

예문 (5 ㄱ-ㄹ)의 ‘가라, 가라말, 가래말’의 ‘가라[qara]’는 ‘검다’라는 의미의 몽골어가 말 이름에 차용된 경우다. ‘일 가라’라는 예문 (5 ㄷ)에서 보듯이 언중들은 ‘검은말’을 최고로 쳤음을 알 수 있다. (5 ㄱ)의 ‘추가래’는 ‘갈기가 노르스름하면서도 털빛이 검은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추가래’의 ‘추’는 ‘갈색’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도영(2001/2003)은 ‘추가래’와 같은 말 이름으로 ‘담가라’<sup>19)</sup>를 소개하고 있다. 즉 ‘담가라’는 ‘털빛이 거무스름

18) 털의 색깔과 관련한 말 이름은 이기만(1971), 남도영(2001/2003)에 잘 나와 있다. 그러나 이들 말 이름은 제주에서 조사해 발표했지만 방언형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19) 《표준》 등의 국어사전에 ‘담가라(말)’를 ‘털빛이 거무스름한 말’,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에는 ‘추가라말’을 ‘털빛이 다갈색에 검은 빛깔을 띤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담

한 말'을 말한다. 이기만(1971)도 '추가라'와 '담가라'는 같은 종류의 말로 보고 있다.

4.4.2. 총이, 총마, 총매, 청총, 청총이, 백총이, 흰총이 누룩총이, 먹청총이  
 '총이, 총마, 총매'는 표준어 '총이말'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표준》 등의 주석을 보면 '총이말'은 '회색털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말'이다.<sup>20)</sup> '총이'는 '청총이', '누룩총이', '백총이'로 분화하여 나타난다.

- (6) ㄱ. 이 청총은 검은 터럭에 흰털이 하나씩 난 거주.(이 총이말은 검은 털에 흰털이 하나씩 난 거주.)<도련, 이영숙>
- 나. 똑갓찌 허영헌 물인디 허나는 백매고 허나는 총매라. ㄱ갓 허영헌 물 중에 머리 그 갈기허고 총이 검은 털이 들어 이시민 총매.(똑같이 허연 말인데 하나는 백매고 하나는 총이말이야. 같은 허연 말 중에 머리 그 갈기허고 총이 검은 털이 들어 있으면 총이말.)<가시, 오국현>
- ㄷ. 총이엔 흰 건 사람 머리 흰 것 모양이라. 총이나 꺾이나 얼룩달룩 얼룩달룩허주게. 회도 아녀고 검도 아녀고.(총이말이라고 한 것은 사람 머리 흰 것 모양이야. 총이나 털이나 얼룩달룩 얼룩달룩하지. 회도 않고 검도 않고.)<가시, 고창효>
- ㄹ. 총마도 전부 나누기 다 해야사. 청총이는 터럭이 허뚜룩헌 게 과란 털이 하영 부든 게 청총이, 그것이 제라한 청총이. 누룩총인 노리씨급. 유매 그 총갈기가 허솔 흰 거 서껴져부난 누룩총이. 백총이는 몸뻑인 다 허영허고 총갈기가 검어부난 백총이.(총이말도 전부 나누기 다 해야. 청총이는 털이 해떡하게 과란 털이 많이 붙은 게 청총이. 그것이 제대로된 청총이. 누룩총이는 노르스름. 유매 그 총 갈기가 조금 흰 것 섞여 버리니까 누룩총이. 백총이는 몸은 다 허영고 총 갈기가 검어 버리니까 백총이.)<가시, 오국현>

가라'와 '추가라'는 털 색깔이 비슷한 것 같다.

20) 이기만(1971)은 “‘총마’는 ‘총이말’, ‘청총마’, ‘청총이’라고도 하는데, 유시에는 가라·유마·적다 등의 원모색과 백색의 혼생모색인데 3~4세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6세 이후는 백색모가 거의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이기만, 1971:900).



- ㄱ. 청총이는 희면서도 검은 털 박아지민 푸르스름하여.(‘청총이’는 희면서도 검은 털이 박히면 푸르스름해.)<송당, 흥태유>
- ㄴ. 청총이도 두 가지라. 먹청총이 있고 흰청총이 있고.(‘청총이’도 두 가지야. ‘먹청총이’ 있고 ‘흰청총이’ 있고.)<성읍, 송순원>

‘총이’는 예문 (6 ㄱ)에서 보듯이, 총 색깔이 검은 털에 흰털이 섞여 있는 말을 가리킨다. (6 ㄴ)처럼 흰말이어도 온통 흰말은 ‘백매’라고 하지만 갈기와 총에 검은 털이 들어 있으면 (6 ㄷ)처럼 ‘백총이’라고 할 수 있다. ‘백총이’는 ‘흰청총이’ 형태로도 실현된다. 《표준》에는 ‘총(驄)’을 ‘攏’으로 쓴 ‘백총마(白攏馬)’를 표제어로 올려 ‘백마’와 같은 의미의 어휘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백총마(白攏馬)로 써야 맞다.<sup>21)</sup> 몸통 색이 하애도 총과 갈기의 색깔이 다르면 ‘백총이’라고 하는 예문 (6 ㄷ)은 참고할 만하다.

‘청총이’는 (6 ㄴ-ㄷ)에서 보듯이, “터럭이 허뚱룩헌 게 파란 털이 하영 부쁜 것”이라는 설명에서처럼 총의 색깔이 푸른빛을 띠는 말을 가리키고, ‘누룩총이’는 총과 갈기가 유마처럼 누런 색깔이 들어있는 말이다. ‘먹청총이’는 말의 총이 먹색과 흰색이 합쳐졌지만 먹색에 더 가까운 총이말을 가리킨다.

(7)의 《표준》 등 국어사전에 ‘총이말’의 뜻풀이가 제각각이어서 사전의 주석을 보완할 때는 앞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선》에는 ‘청총이’가 ‘총이말’과 같은 의미의 어휘로, 《표준》《우리》《금성》에는 ‘총이말’의 잘못된 뜻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들 사전은 ‘총이말’을 ‘청총마’와 같은 의미로 주석하고 있지만 예문 (6)에서 보이는 것처럼 ‘총마’와 ‘청총이’는 색깔의 미묘한 차이로 인하여 언중들은 이름을 달리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총이말’은 몸통이 하얗고 갈기와 꼬리 부분이 흰색과 검은색을 띠고, ‘총이’이면서도 그 색깔이 푸른 기운을 띠고 있으면 ‘청총마’로 그 이름을 구분하여야 온당하다.

21) ‘총이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때 ‘백총마(白攏馬)’는 예문 (6 ㄷ)의 설명에서처럼 ‘백총(白驄)마’일 개연성이 높다.

(7) 총이말

- ㄱ. 회색털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말. ≍총마. (《표준》)
- ㄴ. 푸른 색깔을 띠면서도 몸통이 흰 말. (=)청총마. 총마. 드총이. 驄-(《조선》)
- ㄷ. 푸른빛을 띤 부루말. 갈기와 꼬리가 파르스름하다. <한>천총마. 청총마.(《우리》)
- ㄹ. 갈기와 꼬리가 파르스름한 흰말. 천총마(千驄馬). 청총마(靑驄馬).(《금성》)

4.4.3. 적다, 적다말, 붉은말, 초적다, 고치적다

‘적다, 적다말’은 표준어 ‘절따말’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적다[말](赤多馬)’은 몽골어 ‘je’erde[赤]’에 ‘말[馬]’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 이름으로, 털 색깔이 붉은색을 띠는 말을 가리킨다. 문헌에는 ‘절다: 驛, 절다말: 赤馬, 절따말: 赤馬’가 보인다. 고유어로는 ‘붉은말’이 쓰이고 있다.

- (8) ㄱ. 보통은 적다말인데 저 적다가 안 돼는 게 있주. 총 갈기가 검어불면은 그건 유마로 돼어 불어. 총갈기가 노립지근해 불민 초적다고(보통은 절따말인데 저 절따가 안 되는 게 있지. 총 갈기가 검어버리면 그것은 유마로 되어 버려. 총 갈기가 노르스름해 버리면 ‘초적다’고.)<가시, 오국현>
- ㄴ. 적다말 중엔 초적다엔 허고 저 고치적다엔 허지.(절따말 중에는 ‘초적다’라고 하고 저 ‘고치적다’라고 하지.)<가시, 오국현>

(8)의 예문으로 보면, ‘적다말’도 총과 갈기에 검은색을 띠면 ‘유마’가 되고, 색이 노르스름하면 ‘초적다’라고 하여 이름을 구분하고 있다. ‘고치적다’는 ‘고치+적다’ 구성으로, 그 색깔이 익은 고추 색깔을 하고 있어 ‘적다’와 구분하고 있다.

#### 4.4.4. 율라, 율라말

‘율라말’은 ‘털빛이 얼룩얼룩한 말’이다. 《조선》과 《우리》에 ‘위라말’이라고 표제어로 올라 있으나 《표준》과 《금성》에는 ‘→얼룩말 01’이 맞다고 풀이하고 있다. 《표준》 등에는 ‘얼룩말’의 뜻풀이를 ①얼룩말 01 털빛이 얼룩 얼룩한 말. ≍ 율라마. ②얼룩말 02 얼룩말아속의 포유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처럼 구분하고 있다.

- (9) ㄱ. 율라말은 이 테레비에도 나올 거우다. 보민은 붉은 것에 흰 거, 흰 것이 골펜으로 그린 것<sup>ㄴ</sup>찌 닛도 몸도 그려진 거 율라말.(율라말은 이 텔레비전에도 나올 겁니다. 보면 붉은 것에 흰 거, 흰 것이 볼펜으로 그린 것같이 닛도 몸도 그려진 거 율라말.)<가시, 고창효>
- 나. 율라말은 도리도리 돌아져 흰 거 율라말. 독지에도 흰 게 서꺼진 게 율라말.(율라말은 도리도리 돌아져 한 것 율라말. 어깨에도 흰 게 섞어진 게 율라말.)<가시, 오국현>
- ㄷ. 적다말이나 가라말에나 흰줄 긋어진 거. 앞다리나 뒷다리나 흰줄 낭 영허어진 거 잇주게. 그건 율라말.(절따말이나 가라말이나 흰줄 그어진 것. 앞다리나 뒷다리나 흰줄 나서 이렇게 해진 것 있지. 그것은 율라말.)<도련, 이영숙>
- ㄹ. 율라는 흰털에 노란 털 박아진 거.(율라는 흰털에 노란 털 박힌 것.)<성음, 송순원>
- ㄱ. 율라말은 희고 노리고 점백이 박아진 거.(율라말은 희고 노리고 점박아진 것.)<송당, 홍태휴>

‘율라말’은 예문 (9 ㄱ-ㄱ)에서 보듯이, ‘가라말’이나 ‘절따말’에 동글동글하게 흰 부분이 섞여 얼룩진 말을 가리킨다. 문헌어 ‘율라, 율라말’이 방언형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다. 《시경언해 물명:11》의 ‘율라. 駟’, 《역어유해 하:28》의 ‘율라말: 화마(花馬)’, 《유씨물명고 1:수족》의 ‘율야가 그것이다. 강영봉 (1990:50-51)은 ‘율라’는 몽골어 ‘alag’의 차용어임을 밝힌 바 있다. 즉 ‘율라’는 예문 (9 ㄱ)에서처럼 흰색과 누런빛이 얼룩얼룩하게 점처럼 박힌 말이다. 석주

명(1947)과 박용후(1962)의 사전에는 ‘올아’ 형이 올라 있다.

#### 4.4.5. 유마, 유마말, 즈류마, 검은유마, 보흰유마

‘유마, 유마말’은 표준어 ‘유마(驢馬)’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표준》 등 남한에서 발간된 국어사전에는 ‘유마’를 ‘ㄹ1’ 갈기는 검고 배는 흰 말. ‘ㄹ2’ 갈색 말’ 두 가지로 주석하고 있어 제주 언중들의 인식과는 차이가 난다.<sup>22)</sup> 《조선》에는 ‘유마’가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제주에서 ‘유마’는 주석 ‘ㄹ2’의 ‘갈색 말’의 의미로만 쓰이지 ‘ㄹ1’ 갈기는 검고 배는 흰 말’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sup>23)</sup> 이런 해석은 예문 (10)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10) ㄱ. 오류마는 그게 뭐 즈주빋엔(즈주삐센) 허는가.(오 유마는 그게 뭐 자줏 빛이라고 하는가.)<도련, 이영숙>
- 나. 유마엔 흰 건 노리롱헌 거. 유마말엔 흰 거.(유마라고 한 것은 노르스름 한 것. 유마말이라고 한 거.)<가시, 고창호>
- 다. 유마는 노린 색깔에 검은털이 박아지주.(유마는 노린 색깔에 검은 털이 박히지.)<성읍, 송순원>
- ㄹ. 유마도 빨강헌 즈류마가 있고 검은유마 보흰유마 경허영 세 가지. 유마는 그자 말강헌 노린 건디 그거는 보이꼬롱만 허니까 이건 보흰유마. 즈류마엔 흰 건 빨강허여. 총갈기가 검어 버리니까 즈류마. 검은유만 보통으로 그 말을 가라말이엔 불를 정도인데 그 총 갈기가 틀리니까 저 유마말.(유마도 빨간 ‘자류마’가 있고 ‘검은유마’ ‘보흰유마’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유마는 그저 말끔하게 노린 것인데 그것은 부유스름하니까 이것은 ‘보흰유마’. ‘자류마’라고 한 것은 빨개. 총 갈기가 검어 버리니까 ‘자류마’. ‘검은유마’는 보통으로 그 말을 가라말이라고 부를 정도인

22) 석주명(1947)에서는 ‘갈색마’로 유마를 풀이하면서도 “다소 의미는 상이하나 유기(油氣)가 많고 빛나는 말이란 중국어 ‘유마(油馬)’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석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확대 해석인 것 같다.

23) 이기만(1971)도 이회승의 《국어대사전》의 “유마는 갈기는 검고 배는 흰 말”이라는 뜻풀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데 그 총 갈기가 다르니까 저 유마.)<가시, 오국현>
- ㉑. 몸뚱이가 빨강허면은 적다. 게른 총갈기가 검은 거 서껴져 불민 유마.  
(몸뚱이가 빨가면 절따. 그러면 총 갈기가 검은 것 섞어져 버리면 유  
마.)<가시, 오국현>

(10 ㉑-㉒)을 보면, ‘유마(驢馬)’는 ‘자주빛’ 또는 ‘노리롱헌’ 말이다. 《한한대사전》에 ‘유(驢)’는 ‘월따말 유’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표준》 등에는 ‘월따말’을 ‘털빛이 붉고 갈기가 검은 말’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어, ‘유마’의 몸통 색깔이 붉은색 계통임을 알 수 있다. ‘즈류마’는 ‘자류마’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10 ㉒)의 예문에서 보듯이 ‘몸통이 붉은 색에 가까운 자주색에 갈기가 검은 말’<sup>24)</sup>이고, ‘보헌유마’는 ‘노르스름한 색깔의 몸통을 하면서 총과 갈기가 검은 색을 띠는 말’이다. ‘감은유마’는 ‘가라말’에 총 갈기가 갈색을 띠어서 붉은 이름이다.

#### 4.4.6. 거을, 거을몰, 거홀몰

‘거을, 거을몰, 거홀몰’은 표준어 ‘거할마(巨割馬)’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표준》에는 ‘주둥이가 흰 말’이라고 주석하고 있다. 《역어유해 하:28》에 ‘거홀몰: 糊糲’을 보면, ‘거홀몰’은 ‘입에 가루를 바른 것과 같은 흰 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예문 (11 ㉑, ㉒)의 “주둥이만 스뭇 흰색도 아닌 히뚜롱만 헤어버려.” “거을몰은이 주둥이가 희뜩희뜩허영 영 주둥이만 돌라지게 입이 쟁긴 몰이 잇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1) ㉑. 거홀몰은 보통 황색에 주둥이만 스뭇 흰색도 아니고 히뚜롱만 헤어버려. 거홀몰은 몰이 보통으로 심웁이 굿어서 아무나 아저맹이지 못허는 게 거홀몰.(거할마는 보통 황색에 주둥이만 사뭇 흰색도 아니고 해뜩만 해버려. 거할마는 말이 보통으로 심술이 굿어서 아무나 가져다나지 못

24) 《표준》 등에는 ‘밤색의 털이 난 말’이라고 주석하고 있다.

하는 게 거할마.)<가시, 오국현>

나. 거흠말이엔 현 거 심웁이 보통 아니. 물젠도 허고 이 마차 메와근에 어디 가당도 임제 어디 정신 놔 불민 내돌아 불곡. 계민 거흠말 탄 사람 광 벗도 허지 말고 ㄱ치 말곤지 말렌.(거할마라고 한 것 심술이 보통 아니. 물려고도 하고 이 마차 메워서 어디 가다가도 임자 어디 정신 놔 버리면 내달아 버리고 그러면 거할마 탄 사람과는 벗도 하지 말고 같이 말하지 말라고.)<가시, 오국현>

디. 거을말은 이 주둥이가 희뜩희뜩허영 주둥이만 돌라지게 생긴 말이 있어. 것ㄱ라 거을엔 허주게.(거할마는 이 주둥이가 해뜩해뜩해서 주둥이만 돌라지게 생긴 말이 있어. 그것보고 거할마라고 하지.)<도련, 이영숙>

‘거흠말’은 (11 ㄱ-나)의 “심웁이 꺾어서 아무나 아저텨이지 못허”고, “거흠말 탄 사람광 벗도 허지 말고 ㄱ치 말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언중들은 ‘심술이 꺾어 다루기 힘든 말’로 인식하고 있다.

박용후(1961/1988)에서는 ‘거흠말’을 ‘백색에 청흑색이 섞인 말’이라고 하고 있고, 송상조(2007)는 ‘몸통은 갈색이나 주둥이와 네 발의 위쪽은 흰 말. 제주도에서 가장 열등마로 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석주명(1947)의 주석과 같다.

#### 4.4.7. 구렁말, 구렁적다

‘구렁말’은 ‘털 빛깔이 밤색인 말’을 가리킨다. ‘구렁말’은 몽골어 ‘구렁(küreng)’에 ‘말’이 결합해 이루어진 어휘로, 《번역노걸대》 등에 ‘구렁말: 울색 말(栗色馬)’이 소개되어 있다. 《표준》에는 ‘노랑말·황고라말·황고랑·황마 01’의 다른 이름으로 ‘구렁말’이 올림말로 올라 있다.

(12) 구렁말은 색깔이 노리도 아녀고 붉도 아녀고 해서 밤색. 밤색이난에 총갈기 할 가지가 다 밤색이민 구렁말. 그것에 붉으면 구렁적다.(구렁말은 색깔이 노리지도 않고 붉지도 않고 해서 밤색. 밤색이니까 총 갈기 한 가지가

다 밤색이면 구렁말. 그것에 붉으면 구렁절따.)<가시, 오국현>

예문 (12)를 보면, ‘구렁말’은 밤색을 띠는 말이고, 여기에 총 갈기가 붉으면 ‘구렁적다’라고 해서 말 이름을 구분하고 있다. 《유씨물명고 1:수족》의 ‘구렁절따. 울색마(栗色馬)’의 방언형이 ‘구렁적다’이다. 그러므로 ‘구렁절따’를 ‘밤색 말’로 풀이한 것은 잘못이다. ‘구렁+적다’ 구성의 ‘구렁적다’는 예문 (12)를 참고하면, ‘구렁말’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몸은 밤색이지만 총 갈기가 붉은 색을 띤 말’로 주석하는 게 온당하다. ‘구렁적다’는 사전에는 올림말로 올라있지 않지만 표준어로 옮기면 ‘구렁절따’ 정도가 될 것 같다.

#### 4.4.8. 백매

‘백매[白馬]’는, ‘온몸이 흰색으로 된 말’이다. 《번역노걸대》(하 9) 등의 ‘설아말: 백마(白馬)’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설아말’은 ‘흰 바탕에 거뭇한 점이 섞여 있는 말. ≡은갈마.’의 의미로도 쓰였다. ‘설아말’의 표준어형은 ‘서라말’로 나타난다. 이때 ‘설아’는 몽골어 ‘설이[sirqa]’에서 차용한 말 이름으로, 《유씨물명고 1: 수족》에는 ‘설이마: 은갈마(銀褐馬)’로 기술되어 있다. 방언형으로는 ‘백매’가 색깔이 온통 흰 말을 가리키는 어휘 ‘백말’, ‘흰말’ 형태로도 나타난다.

(13) 백매는 흰 거.(백마는 흰 것.)<송당, 흥태후>

#### 4.4.9. 고라, 고라말

‘고라, 고라말’은 표준의 ‘고라말’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몽골어 ‘고라[qula]’에 ‘말’이 합성된 어형으로, ‘등에 검은 털이 난 누런 말’을 말한다. 《번역노걸대 하:9》의 ‘토황마(土黃馬) 고라말’, 《한청문감 14:22》의 ‘갈기와 꼬리 검은 고라말: 흑중황마(黑鬃黃馬)’의 ‘고라말’이 방언형에 남아 있는 경우다. 그러나 언증들은 ‘고라말’을 누르면서도 불그스레한 말로 해석하고 있어 문헌의 주석과는 차이가 있다.

- (14) 고라말이 누리롱허고 불그롱허곡 붉은 기운 이신 것이 고라:(고라말이 누리  
릿하고 불그레하고 붉은 기운 있는 것이 고라.)<송당, 김병현>

#### 4.5. 모양에 따른 말 이름

##### 4.5.1. 태성, 태성말, 태성백이, 소태성, 왕태성/큰태성/보석태성

‘태성, 태성말, 태성백이, 왕태성/큰태성/보석태성’은 ‘흰 점이 이마에 별처럼  
박힌 말’을 가리킨다. 표준어 ‘대성마(戴星馬)’, 또는 ‘별박이’에 대응하는 말 이  
름이다. ‘태성, 태성말, 태성백이’의 ‘태성’은 큰 별이라는 의미로, ‘태성백이’는  
‘태성(太星)’이 박힌 말이라는 뜻이다.

- (15) ㄱ. 태성, 간전. 울로부터 요까지 온 건 간전매, 간전말. 태성말은 요디만 동  
글랑케 이신 거.(대성. 간자말. 요리로부터 요까지 온 것 간자마. 간자  
말. 대성마는 요디만 동그렇게 있는 것.)<가시, 오국현>
- ㄴ. 태성 무늬에 따라온에 그것도 크게 박은 건 왕태성. 큼직하게 큰 건 그  
건 몰도 어질곡 허는디, 요영 쪼그만이헌 건 몰이 싸무라와.(대성 무늬  
에 따라서 그것도 크게 박힌 것은 ‘왕태성’. 큼직하게 큰 것은 그것은  
말도 어질고 하는데, 요렇게 자그마한 것은 말이 사나워.)<가시, 오국  
현>
- ㄷ. 태성은 보석태성 지엇저. 큰태성이 보석태성 진 말.(대성은 ‘보석태성’  
지었다. ‘큰태성’이 ‘보석태성’ 진 말.)<송당, 김병현>

예문 (15 ㄱ)을 보면, ‘태성’은 점의 크기에 따라서 큰 것은 ‘왕태성’이고, 작  
은 것은 ‘소태성’이라고 하였다. ‘소태성’은 《한청문감 14:22》의 ‘쇼티 성: 옥  
정(玉頂)’, 《유씨물명고 1:수족》의 ‘쇼티성: 적(驛)’, 《역어유해 하:28》의 ‘쇼  
티성마: 옥정마(玉頂馬)’, 《동문유해 하:37》의 ‘쇼티성말: 옥정마(玉頂馬)’에  
해당하는 말 이름으로, 이마에 흰 점이 자그마하게 박힌 말이다. ‘왕태성’과 ‘큰  
태성’은 ‘이마에 흰 점이 크게 박힌 말’이라는 뜻이다. 달리 ‘보석태성’이라고도



한다. ‘보석태성’은 흰 점이 보석처럼 크게 박혀 있어서 붙은 어휘다.

예문 (15 ㄴ)의 “큰 건 몰도 어질고 하는데 요영 쪼그만이 흰 건 몰이 싸무라와.”에서 보이듯 언중들은 점의 크기를 보고 큰 것은 어진데 반해 작은 것은 사납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 4.5.2. 멘백이, 코멘백이

‘멘백이[面白-]’는 얼굴이 흰 말을 가리킨다. ‘코멘백이’는 코 부위가 흰 말을 말한다.

- (16) ㄱ. 몰 마뻘에 점 찍어진 거엔도 곧고 멘백이엔도 허곡.(말 이마에 점 찍어진 것이라고도 말하고 면백이라고도 하고 이마에 대성이 그거야.)<가시, 고창호>
- ㄴ. 앞의 멘이 희니까 멘백이. 멘백이는 머리뻘이 허뚜룩허영 넓게 흰 거고 태성백인 쪼끄만헌 거고.(앞의 면이 희니까 면백이. 면백이는 머리뻘이 해뜩해 넓게 흰 것이고 대성마는 자그마한 것이고.)<송당, 김병현>

예문 (16 ㄴ)처럼 ‘멘백이’는 얼굴에 흰 부분이 넓게 퍼진 말이다.

#### 4.5.3. 간진, 간진물, 간진이, 간전매, 코간진이, 썰간진이, 코피말이

‘간진, 간진물, 간전매’는 이마에서 코 밑으로 흰 털이 길게 나 있는 말 이름이다. ‘간진이, 간전매’는 표준어 ‘간자말’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몽골어 ‘간자(galjan)’에서 차용된 말이다. 몽골어 ‘galjan’는 ‘별’ 또는 ‘별무늬’라는 의미로, ‘간진물’은 《동문유해 하:37》 등의 ‘간자말: 線臉馬’에서 보이듯 ‘선이나 별이 박힌 말’이다.

- (17) ㄱ. 태성, 간진, 간전매, 간진물. 태성물은 요디만 동글랑게 이신 거.(태성, 간자, 간자말, 간자마. 대성마는 요디만 동그랑게 있는 것.)<가시, 오국현>

- ㄴ. 간전매. 마뺏에서부터 입바위까지 온 건 간전이. 영 넓은 거는 기자 코간전이엔도 허고, 코간전이 올로만 흰털 마뺏 우의만 신 거도 있고, 마뺏 우의서부터 코까지 온 건 썰간전이 깐느리 나온 거. 콧물리부터 주둥이로 내려온 건 코피말이.(간자말. 이마에서부터 입술까지 온 것은 간자말. 이렇게 넓은 것은 그저 ‘코간전이’라고 하고 ‘코간전이’ 요리로만 흰털 이마 위에만 있는 것도 있고, 이마 위에서부터 코까지 온 것은 ‘썰간전이’ 가느랗게 나온 거. 콧마루부터 주둥이로 내려온 것은 ‘코피말이’.)<가시, 오국현>
- ㄷ. 코피말이가 요영 행 오락 이디 주둥이로 앞 이디 코가 희여. 게민 그저 코피말이.(‘코피말이’가 요렇게 해서 와서 여기 주둥이로 앞 여기 코가 하예. 그러면 그것 ‘코피말이’.)<가시, 고창호>

(17 ㄱ)의 예문을 보면, ‘간전이’도 이마에서 코까지 흰 털이 길게 나 있는 말은 ‘코간전이’, 흰 털이 가늘고 길게 나 있는 것은 ‘썰간전이’, ‘콧물리에서 주둥이로 내려온 것’은 ‘코피말이’라고 하여 명칭이 분화되어 있다. 여기에서 ‘썰’은 ‘가느다란’의 의미로 쓰이는 표준어 ‘실’에 대응하는 접두사다. ‘썰간전이’는 《한청문감 14:22》의 ‘실간자: 線臉’에서 온 말로, 문헌어가 방언형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개정중보 제주어사전》 등에는 ‘코간전이’와 ‘(코)피말이’를 유의어로 보고 있는데, 예문 (17 ㄴ)을 보면, ‘코간전이’와 ‘코피말이’는 문양의 위치에 따라 말 이름이 분화한 경우다. ‘코피말이’는 어느 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은 어휘다.

#### 4.5.4. 족백이, 앞족백, 앞족백이, 앞백이, 뒷족백, 뒤족백이, 뒷백이, 스족백, 스족백이(사족백이)

‘족백이’는 ‘굽이 흰 말’을 가리킨다. 앞의 두 굽만 흰 말은 ‘앞족백, 앞족백이, 앞백이’, 뒷발굽만 흰 것은 ‘뒷족백, 뒷백이, 뒤족백이’로 분화해 나타난다. 네 굽이 다 희면 ‘스족백, 스족백이’라고 하는데, ‘스족백이’는 표준어 ‘사족백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한자어로는 ‘사명마(四明馬)’라고 한다. 《시경언해

물명:21》의 ‘스족백: 驢’, 《동문유해 하:37》 등의 ‘스족백: 銀蹄馬’이 방언형에 남아 있는 경우다.

- (18) ㄱ. 족백이 있고, 발 네 개 흰 건 스족백이. 뒷발 두 개만 흰 건 뒤족백이. 두 개씩만 흰 것 허고 네 개 다 희여. 보통으로 불러도 그런 거 이신 물은 무신 사고가 있어.(‘족백’이 있고, 발 네 개 흰 것은 사족백이. 뒷발 두 개만 흰 것은 ‘뒤족백’이. 두 개씩만 흰 것하고 네 개 다 희여. 보통으로 불러도 그런 것 있는 말은 무슨 사고가 있어.)<가시, 오국현>
- ㄴ. 앞발 알러레 뒷발만 흰 거 건 족백인디, 흐솔 뜨나게 굶는 사람은 저 앞족백과 뒤족백은 잘못 사면은 손해본덴. 네 개 다 흰 건, 네 개 다 다리까지 희면 사족백이엔 허는가.(앞발 아래로 뒷발만 흰 거 그것은 ‘족백’인데, 조금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저 앞족백과 뒤족백은 잘못 사면 손해본다고 네 개 다 흰 것은, 네 개 다 다리까지 희면 사족백이라고 하는가.)<가시, 오국현>

‘족백’의 의미는 예문 (18 ㄱ-ㄴ)에서 확인된다. 《역어유해 하:28》의 ‘간차스족백: 五明馬’는 ‘이마와 네 발이 흰 말’을 말한다. 이처럼 털 색깔과 문양에 따라 말 이름이 다양하게 붙여졌음을 알 수 있다.

#### 4.5.5. 화등매, 화등이, 활등이

‘화등매/화등이, 활등이’는 활의 등처럼 ‘등뼈가 안으로 우묵하게 휘어진 말’이라는 뜻이다. ‘활등+이’ 구성으로, 활의 ‘근’이 탈락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혼재해 나타난다.

- (19) ㄱ. 등이 중심으로 바깥으런 자부레기엔 허는가. 앞드레 숙여진 건 접수기, 등 고부러진 건 화등매라고.(등이 중심에서 바깥으로는 ‘자부레기’라고 하는가. 앞으로 숙여진 것은 접수기, 등 구부러진 것은 화등매라고.)<가시, 오국현>

나. 화등이 진 건 등어리가 사람 앞이민 양쪽 이 어깨하고 뒷다리 부튼 디가 노프주. 등이 안으로 뭉싹허게 돌아오라.(‘화등이’ 진 것은 등어리가 사람 앞으면 양쪽 이 어깨하고 뒷다리 붙은 데가 높지. 등이 안으로 우묵하게 돌아와.)<가시, 오국현>

#### 4.5.6. 자부레기

‘자부레기’는 예문 (19 ㄱ)에서 알 수 있듯이, 등이 중심에서 바깥으로 휘어진 말을 말한다. 즉 ‘한쪽으로 기울어진 말’이다.

#### 4.5.7. 접수기

‘접수기’는 ‘접’이 앞으로 숙여진 말을 가리킨다. ‘접’은 ‘주걱처럼 생긴 마소의 어긋죽지의 뼈’를 말하는데, 표준어 ‘주걱뼈’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20) 등이 중심으로 바깥으런 자부레기엔 허는가. 앞드레 숙여진 건 접수기.(등이 중심에서 바깥으로는 자부레기라고 하는가. 앞으로 숙인 것은 ‘접수기’).<가시, 오국현>

#### 4.5.8. 구부렁말, 꼬부랑말

‘구부렁말’은 등이 앞으로 구부러진 말을 가리키는 어휘다. 달리 ‘꼬부랑말’이라고도 한다.

(21) 새우등 모양으로 진 놈도 있고. 그게 구부렁말엔 허여. 구부렁말.(새우등 모양의 놈도 있고. 그게 ‘구부렁말’이라고 해. ‘구부렁말’).<가시, 고창호>

예문 (21)을 보면, ‘구부렁말’은 ‘새우등 모양으로 구부러진 말’을 말한다. ≪유씨물명고 1:수족≫의 ‘시오등: 躄’이 여기에 해당하는 말 이름이 아닌가 한다. 표준어 ‘구부렁말’은 ‘등이 굽은 말’ 즉 ‘곰배말’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 4.5.9. 족발이

‘족발이’는 걸을 때 발회목 위가 내리 디더지는 말이다. 예문 (22 ㄱ-ㄴ)의 ‘족발이’는 뒷굽의 발회목이 내려앉아서 말이 힘은 없으나 말을 타면 편안하다고 한다. 언중들은 “족발이가 천상매 난다.”고 인식하고 있다.

(22) ㄱ. 족발이가 천상매 난덴 허주. 그치록 멜랑멜랑허민 사름이 타민 펜안헌디 멜랑멜랑 힘이 없어. 몰 발만 사진 아녕 슬궤지 부떠 붙어.(‘족발이’가 천마 난다고 하지. 그처럼 말랑말랑하면 사람이 타면 편안헌데 말랑말랑 힘이 없어. 말 발만 서지는 앓고 살까지 붙어 버려.)<가시, 오국현>

ㄴ. 족발이 이렇게 톱으로 영 생긴 건디 발이 영 넓작허게 생긴 게 있어. 톱만 부떠야 돼ندي 뒤꿈치까지 다 부떠 붙어.(‘족발이’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생긴 것인데 발이 이렇게 넓작하게 생긴 게 있어. 톱만 붙어야 되는데 뒤꿈치까지 다 붙어 버려.)<송당, 흥태휴>

#### 4.5.10. 미홍이

예문 (23)의 ‘미홍이[尾-]’는 ‘꼬리가 한쪽으로 휘어진 말’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어휘인데, 《표준》 등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23) 미홍이렌 헨 거 있어. 말꼴리가 트라져. 게난 몰 꼴리가 혼쪽으로 올라간 건 고칠 수가 잇영 몰 풀 때 침 권에 폴아먹어났젠.(‘미홍이’라고 한 것 있어. 말꼴리가 비틀어져. 그러니까 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간 것은 고칠 수가 있어서 말 팔 때 침 쥐서 팔아먹었었어.)<가시, 오국현>

### 4.6. 주법에 따른 말 이름

#### 4.6.1. 제매, 제마

‘제매, 제마’는 말이 달리는 주법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 (24) ㄱ. 제매는양 걸음이 틀려. 이디 조랑말은 돌아가민 덜럭덜럭덜럭허는디 그거는 네 발로 가도 출출출출 가면은 몰 타앉아도 사름이 아주 편허여. (제마는요 걸음이 달라. 여기 조랑말은 달려가면 덜럭덜럭덜럭하는데 그것은 네 발로 가도 찰찰찰찰 가면 말 타서 앉아도 사람이 아주 편안해.)<가시, 고창효>
- ㄴ. 제마라고 네 발인디 각각 노려 걷는 건디 보통은 두 발로 걷는 식으로 앞뒤 다리가 ㄱ치 영 허는 거.(제마라고 네 발인데 각각 놀려 걷는 것인데 보통은 두 발로 걷는 식으로 앞뒤 다리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련, 이영숙>
- ㄷ. 제마엔 해근에 제 걸음으로 골르젠 그 말만 타켄 허영은에 걷는 게 완전히 뜬나. 이거 뒷발허고 앞발허고 혼디 나가고.(제마라고 해서 제 걸음으로 고르려고 그 말만 타겠다고 해서 걷는 게 완전히 달라. 이거 뒷발허고 앞발허고 같이 나가고.)<가시, 오국현>

(24 ㄱ-ㄷ)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제매, 제마’는 ‘네 발을 두 발로 걷듯이 앞뒤 다리를 함께 내디디며 걷는 말’이다. 예문의 설명대로라면 ‘제마’<sup>25)</sup>의 주법은 몽골말의 주법의 하나인 ‘조로모리’와 유사하다. 그러나 《표준》 등의 국어사전에는 ‘제마’가 ‘제주도에서 나는 말’로 주석하고 있다. 이는 석주명(1947)의 사전에 ‘제마(濟馬)’와 ‘재마(才馬)’가 사용되면서 ‘제마(濟馬)’가 다른 사전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에서 발간된 방언사전과 언중들 사이에서는 ‘제마(濟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 박용후(1988)의 사전에는 ‘제마(才馬)<sup>26)</sup>’가 ‘준마’의 의미로 올라 있고, 현평효 등(2009)의 사전과 송상조(2007)의

25) ‘제마’에 대해서는 박원길(2005)을 참고할 수 있다. 박원길(2005)에서는 제주의 조랑말은 몽골말의 주마법 가운데 ‘amble’이 제주에서 부르는 ‘제마(濟馬)’의 주법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amble은 같은 쪽의 앞·뒷다리가 서로 근접하는 일이 없게 앞의 왼발과 뒤의 왼발이 동시에 들리는 주법이다. … 낙타와 같은 걸음걸이를 구사하는 amble 주법은 질주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앞·뒷다리가 맞부딪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훈련에 의해서 그 동작을 빠르게 하면 꽤 스피드를 낼 수도 있다. 또 이 주법은 승마 시 기수가 거의 반동을 받지 않는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달릴 때 상하의 진동이 없이 아주 매끄럽게 달리는 이 주법을 구사하는 말들을 몽골에서는 조로모리(Jiruga mori>жороо морь)라 부른다.”(박원길, 2005:224-225). 이 내용을 보면 제주에서 제마라고 부르는 말이 조로모리 주법으로 달리는 말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사전에는 ‘제마(齊馬)’의 이형태 ‘제매’가 올라 있다. ‘제매’는 다른 말 이름의 표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제매’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모든 국어 사전의 ‘제마(濟馬)’는 ‘제마(齊馬)’로 수정되어야 온당하다고 본다.

(25) 제마/재마, 제매

ㄱ. 濟馬와 才馬. 濟馬가 濟州馬의 뜻임은 곳 알수가 있다. 그러나 才操걸음은 하는 關係로 才馬라고도한다. 才操걸음이 濟州걸음으로 될수있겟고 才馬가 濟馬로도 될수있겠다.(석주명 사전)<sup>27)</sup>

ㄴ. 제마[jema] 준마(駿馬) (才馬)(박용후 사전)

ㄷ. 제매 [㉠] <동> 사람을 편안히 태우고서 재치있게 달는 말.[어도](개정증보 제주어사전)

ㄹ. 제매 : 이름→제매[어도](송상조 사전)

ㅁ. 제매 : 이름 말이 순해서, 사람을 편히 태우고 달리는 말.[어도] 제-매.(송상조 사전)

위 (25)는 방언사전에 올라 있는 표제어와 뜻풀이다. 조사 예문과 박원길 (2005)의 해석에 근거하여 ‘제마’를 뜻풀이해 보면, 방언사전의 ‘사람을 편안히 태우고서 재치 있게 달는 말’이라는 의미보다는 몽골말의 주마법 가운데 하나인 ‘amble’의 주법 ‘조로모리’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제마’는 ‘같은 쪽의 앞다리와 뒷다리가 서로 근접함이 없게 앞의 왼발과 뒤의 왼발을 동시에 들어 달리는 말. 땀을 때 거의 반동이 없으므로 편안하다.’처럼 주석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26) ‘제마(才馬)’는 석주명(1947)에서 보인다. 석주명은 이 자료에서 ‘제마(濟馬)’와 ‘제마(才馬)’를 소개하며 그 특징도 기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마(濟馬)가 제주마(濟州馬)의 뜻임은 곳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재조(才操)걸음을 하는 관계(關係)로 제마(才馬)라고도 한다. 재조(才操)걸음이 제주(濟州)걸음으로 될 수 있겟고 제마(才馬)가 제마(濟馬)로도 될 수 있겠다(1947:178).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한자 앞에 한글을 앞세운 것은 필자가 논문 규정에 맞게 고친 것이다. 박용후(1988)에 ‘제마(濟馬)’와 ‘제마(才馬)’가 표제어로 소개된 것은 석주명의 자료를 인용한 결과로 보인다.

27) 마침표를 제외하고는 원문 그대로 옮겼다.

## 4.7. 용도에 따른 말 이름

### 4.7.1. 타는말

‘타는말’은 ‘사람이 타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제주에서 말은 이동 수단, 밭 밟을 때, 연자매를 돌릴 때, 가마를 끌 때, 밭을 갈 때, 짐을 실어 나를 때 등 그 쓰임이 다양하다. 그 가운데 ‘타는말’은 조랑말 가운데 가장 편안한 말을 선택해서 ‘ㄱ르쳐서(길들여서)’ 사용한다. 예문 (26)을 보면 ‘타는말’은 ‘제마’를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말을 타면 편안했기 때문이다. 말 값도 ‘제마’가 다른 말보다 비쌌다.

- (26) 제마엔 흰 거는 앞발과 뒷발과 ㄱ치 나가. 타는말로 건 비싸낫주.(제마라고 한 것은 앞발과 뒷발과 같이 나가. 타는 말로 비쌌었지.)<송당, 흥태휴>

### 4.7.2. 듣는말, 경마

‘듣는말’은 ‘달리는 말’로 달리 ‘경마(競馬)’라고 한다. ‘듣는말’은 한자어 ‘주마(走馬)’에 해당한다.

### 4.7.3. 다울리는말/밧블리는말

‘다울리는말/밧블리는말’은 예전에 조 농사를 지을 때 밭을 밟는 용도로 많이 써서 붙은 말 이름이다. 제주도는 화산회토여서 조나 밧벼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린 후에 밭을 밟아줬다. 그래야 밧아가 잘되고 뿌리가 잘 내려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울리는말’은 밭을 밟을 때 사용하는 말로, 밭을 밟는 밧말을 ‘다울릴’(몰) 때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다울리는’은 표준어 ‘쫓는’의 의미이다. ‘밧블리는말’은 ‘밭을 밟을 때 이용하는 말’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어휘다. ‘밧’은 ‘밭’, ‘블리는’은 ‘밟는’, ‘말’은 ‘말’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 4.7.4. 종마, 종장

‘종마’는 ‘씨를 받기 위하여 기르는 말’이다. 고유어로는 ‘씨말’이라고 한다. 방언형으로는 한자어 ‘종마’와 ‘종장’이 보인다. 예문 (27)을 보면, 말 오십 마리에 씨말인 ‘종마’는 한 마리 정도 놓아서 기른다.

(27) 말 오십 필 숫놈 하나 놔. 범접 못하게. 종마, 종장.(말 오십 필 수놈 하나 놓아. 범접 못하게. 종마, 종장.)<송당, 김병현>

### 4.8. 서식지에 따른 말 이름

#### 4.8.1. 꽃말, 산말

‘꽃말’과 ‘산말’은 서식지가 ‘꽃’ 또는 ‘산’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꽃말’은 ‘꽃+말’, ‘산말’은 ‘산+말’ 구성의 어휘다. 여기에서 ‘꽃’과 ‘산’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꽃’은 표준어 ‘숲’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달리 ‘고지’라고도 한다. ‘산말’은 한라산에서 주로 서식하는 말이라는 의미다. ‘야생마’의 다른 이름으로, 서귀포시 색달리에서는 ‘꽃말’과 ‘산말’ 대신에 한자어 야마(野馬)(고광민, 2004:295)’를 쓰고 있다.

목장이 발달한 표선면 가시리와 성읍리 지역에서는 예전에 말을 키울 때 ‘청명’에 목장으로 말을 내몬 후에 입동이 되면 집 가까운 데로 몰아와 사육했다. 예문 (28)을 보면, ‘산말’은 목장에 올려서 키우던 말이 산속으로 들어가 야생이 되어 버린 것이 있다. 이를 두고 ‘꽃말’ 또는 ‘산말’이라고 한 것 같다.

(28) ㄱ. 산췌엔 허고 산말엔 험니다. 사름 접대를 못험주. 이 한라산에 노리 모양으로 사름만 비취가면은 옛날엔 꽃밭되레 둘러든덴 허뵈. 이제는 꽃췌 꽃말이 엇수다.(‘산췌’라고 하고 산말이라고 합니다. 사름 접대를 못하지요. 이 한라산에 노루 모양으로 사름만 비취가면 옛날에는 숲으로 달려든다고 하면서. 이제는 ‘꽃췌’ ‘꽃말’이 없습디다.)<가시, 고창효>  
 ㄴ. 꽃말도 잇주. 그건 고지서 난 꽃말이 스테 후제도 고지 땡길 때 보민 잇

어신디 이젠 윈 엇어.(‘긱물’도 있지. 그것은 숲에서 낳은 ‘긱물’이 사태 후에도 숲에 다닐 때 보면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없어.)<가시, 오국현>

#### 4.9. 기타 말 이름

##### 4.9.1. 텃물

‘텃물’은 ‘테+ㅈ+물’ 구성의 어휘로, ‘떼를 지어 다니는 말’이다. ‘테’는 ‘떼’의 방언형으로, ‘텃물’은 표준어 ‘뺏말’에 대응한다. ‘텃물’은 봄에 목장에 올린 말들이 떼를 지어 생활하거나 ‘조볼랄’ 때 말이 떼로 다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29) 산에 사는 물은 텃물.(산에 사는 말은 뺏말.)<가시, 이영숙>

##### 4.9.2. 지지랭이, 지지랭이물

‘지지랭이’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말’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지스렁물, 지스렁이물, 지시랭이물’이라고 한다.

(30) 방목을 시경 목장에 놔도 웅매가 교미를 해도 새끼 안 가져. 그런 물은 지지랭이. 지지랭이물.(방목을 시켜서 목장에 놓아도 웅매가 교미를 차도 새끼를 안 가져. 그런 말은 돌치. 돌암말.)<가시, 고창효>

예문 (30)에서 보듯이 ‘지지랭이물’은 ‘웅매가 교미를 해도 새끼를 갖지 못하는 말’이다. 새끼를 못 낳는 소나 개, 말 따위의 동물을 가리킬 때도 ‘지지랭이’라고 한다. ‘지지랭이’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돌치’다. 표준어 ‘돌암말’에 대응하는 방언형 ‘지지랭이물’은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 5. 결론

지금까지 제주도 방언의 말 이름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말 이름 관련 어휘를 어휘의미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목축이 성행하였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성읍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제주시 도련동, 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에서 9명의 제보자에게 민족지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한 말 이름 관련 어휘 100개를 품종, 암수, 나이, 모색, 모양, 주법, 용도, 서식 환경, 기타 등 9개의 범주로 나눠 상의어와 하의어로 구분하여 체계화하였다.

말 이름 관련 어휘를 분석,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주의 말 이름은 몽골어 차용어와 한자어, 방언형으로 이루어졌다. 제주의 말 이름 가운데는 ‘말’처럼 아래아가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헌어 등이 방언형에 그대로 전승되고 있어 국어사적 가치도 크다.

둘째, 국어사전 등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은 어휘가 있었는가 하면 표제어와 주석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암수 관련 말 이름’에서 언중들은 말의 암수를 ‘즈매’, ‘웅매’처럼 나누고 있지만 ‘즈매’는 《표준》에는 올라 있지만 ‘웅매’는 《표준》 등의 사전에 ‘수말의 제주방언’으로 소개하면서도 표준어형인 ‘웅마’는 올라 있지 않다.

셋째, ‘나이 관련 말 이름’은 ‘금승매, 이수매, 삼수매’처럼 한자어+‘매’형으로 나타난다. 마소의 나이를 구분하지 않은 《표준》 등과는 달리 제주도 방언에서는 마소의 나이를 구분하고 있다. 나이 관련 말 이름이 《우리》에는 ‘금승매’부터 ‘십수매’까지 표제어로 올라 있는 반면에 《표준》에는 ‘금승마’, ‘칠수매’, ‘팔수매’만 표제어로 올라 있어 사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색 관련 말 이름’에서는 사전의 뜻풀이 오류를 지적하였다. 《표준》의 ‘총이’가 ‘회색털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바탕색 보다는 총 색깔이 검은 털에 흰털이 섞여 있는 말’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표준》 등의 사전에 ‘총이말’과 ‘청총이’를 같은 말로 보고 있지만, 제보자들이 ‘총이’를 ‘청총이, 누룩총이, 백총이’처럼 구분하는 것으로

보아 ‘총이말’과 ‘청총이’는 털 색깔이 서로 다른 말의 명칭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또 《표준》의 ‘백총(白擻)이=백마’는 ‘백총(白驄)이’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마도, 남한에서 발간된 사전에는 ‘1」 갈기는 검고 배는 흰 말. 2」 갈색말’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지만 ‘갈색 말’의 의미로만 주석해야 함을 언중들의 의견과 ‘월따말·털빛이 붉고 갈기가 검은 말’이라는 ‘유(驄)’의 《한한대사전》의 주석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기만(1971)에서도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거할마’의 방언형 ‘거을물’에 대한 기존의 주석과 ‘구렁말’과 ‘구렁적다’가 같은 말로 언급된 《유씨물명고》의 해석도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모양에 따른 말 이름’에서는 기존의 자료에 ‘코간전이’와 ‘피말이’를 같은 것으로 보았지만, ‘코간전이’는 ‘이마에서 코까지 흰 무늬가 있는 말’로, ‘코피말이’는 ‘코에서 주둥이까지 흰 무늬가 있는 말’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주법에 따른 말 이름’에서는 《표준》 등의 ‘제마(濟馬)’는 ‘제주도에서 나는 말’이 아니라 ‘제마(齊馬)’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제마(齊馬)’는 주법에 따른 명칭으로, 몽골어 ‘조로모리’에서 온 말로써,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등의 ‘사람을 편안히 태우고서 재치 있게 달는 말’이라는 주석보다는 ‘같은 쪽의 앞다리와 뒷다리가 서로 근접함이 없게 앞의 왼발과 뒤의 왼발이 동시에 들어 달리는 말’로 고칠 것을 제안하였다.

일곱째, 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은 ‘왕태성, 보석태성, 꽃말, 산말, 코피말이, 지지랭이말’ 등의 새 어휘를 발굴하고, 잘못된 표제어와 주석의 의미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이 논문이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국어사전 등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주석 보완이 필요한 말 이름 관련 어휘가 있을 경우에는 이 논문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만익 외(2010), 《문화지도 제주 가시리》, 가시리신문문화공간조성추진위원회.
- 강민수(1998), 《제주 말(馬) 연구》, 도서출판 열림문화.
- 강민수(1999), 《제주 조랑말》, 제주대학교 출판부.
- 강민수(2005), 《제주마》, 제주대학교 출판부.
- 강영봉(1990), <말이름(馬名)에 대한 관건>, 《한얼》 5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2-51쪽.
- 강영봉(2004), <말 이야기>, 《제주의 말·노루》(제주도 생태 양상 시리즈 5권), 일진사.
- 강영봉(2007), 《제주 한경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 고광민(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 곽충구(1997), <국어사전의 방언 표제어와 그 주석에 대한 검토>, 《국어교육》 9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29-156쪽.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 동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전자사전 사이트 <http://stdweb2.korean.go.kr/>
- 남광우 편저(1997/2009), 《교학 고어사전》, (주)교학사.
- 남도영(1996),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남도영(2001/2003),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박경래(2012), <국어사전과 방언의 수용>, 《방언학》 제16호, 한국방언학회, 351-381쪽.
- 박용후(1961/1988),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 박원길(2005), <제주습속 중의 몽골적인 요소-조랑말의 뜻과 제주방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8집, 215-245쪽.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석주명(1947), 《제주도 방언》, 서울신문사출판부.
-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 왕한석(2010), 《한국의 언어민속》(전라남북도 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운평연구소 편(1999),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이기만(1971), <濟州馬의 모색의 재래명칭 및 분포에 관한 연구>, 《학술지》 12호

(자연과학편),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893-908쪽.

이기문(1985), <중세국어의 몽고어 차용어>, 《어학연구》 21권 1호,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 1-14쪽.

이기문(1991), <몽고어 차용어에 대한 연구>,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장삼식 편(1964), 《대한한사전》, 진현서관.

진성기(1984), <제주도민과 말>, 《제주도연구》 제1집, 제주도연구회.

한글학회(1991),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4, 옛말과 이두), 어문각.

현평효(1962), 《제주도 방언연구》(자료편), 정연사.

현평효 외(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Muriel Saville-Troike 지음, 왕한석 외 옮김(2009), 《언어와 사회》(의사소통의 민족지학입문), 한국문화사.

## A Study on Vocabulary Related to Jeju Cultures about Horses -Especially about Horse names in Jeju Dialect-

Kim Soonja(Jeju National University)

Words about horse names out of horse cultures in Jeju dialect are divided into 9 categories -breed, male and female, age, color, shape, how to run, usage, habitat and so on- and studied morphologically and semantically in this report.

Studies about horse names are usually focused on loanwords from Mongolian and names according to hair colors until now. However, it is meaningful since horse names are sorted by 9 categories and studied semantically.

100 words about horse names researched in 5 villages - Seoguipo-si Pyoseonmyun Gasi-ri, Seongeup-ri, Jeju-si Doryun-dong, Jeju-si Gujwa-eup Songdang-ri, Jeju-si Hangyung-myun Josu 2-ri, and etc.- where ranching well develops are compared words to written sources.

Horse names in Sino-Korean and loanblend are more than those spoken in Jeju native words. Among loanblend, there are many loanwords from Mongolian, for example, Mongolian+Jeju native words, Sino-Korean+Mogolian words. Many horse names about its color are from Mogolian and horse names about its shape and pattern are mainly from Jeju native words+Sino-Korean words. While horse names about sex, function and habitat are from Jeju native language. Mongolian words are used because Mongolian culture about horses directly affected that of Jeju.

Some parts from current resources and footnote of horse names from Korean dictionary need to be complimented and modified because some words which are

researched in this report are not on the list of Korean dictionary. Jeju dialect could be used to enrich the words about cultures about horses since Jeju has raised many horses and has variety of cultures about horses.

Key words : Horses in Jeju, Jeju dialect, ethnography, Gasi-ri, Horse names, Cultures related to horses, Mongolian

김순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63243]

전자우편: sj4765@hanmail.net

접 수: 2015. 10. 29.

수정본 접수: 2015. 11. 21.

게 재 확 정: 2015. 11. 22.